

202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점심생운

생활과 윤리

Final-Y

점심생운 모의고사

202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점심생윤 Final-Y 모의고사

점심생윤™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김지호 (윤리교육 전공)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지영
진해인 (교육학 전공)
유영우 (대인고)
이현승 (울산여고)

학생 검토진

고송이 안예지
구윤석 이영서
김근아 이정민
김다나 장서령
김수연 주가진
김응빈 진채현
김태운 한서정
박태민

펴 낸 일 2024년 08월 26일

펴 낸 곳 점심생윤™

저 자 점심생윤™

문 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윤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윤™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의 입장에서 (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가) 윤리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사실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윤리적 문제는 오직 윤리학으로만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윤리학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
- ④ 하나의 도덕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해결책만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내가 그것을 거듭 또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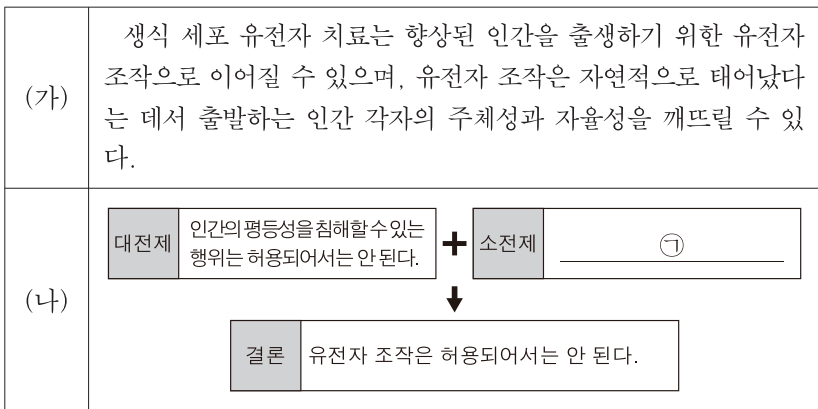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던 수험생 A에게 길에서 짐을 쏟은 어린아이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거짓 핑계를 대고 집에 갈지, 어린아이를 도와줄지 망설이고 있다.

<보기>

- ㄱ. 개인의 자율성을 배제한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도덕 원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ㄷ. 행위가 발생시키는 결과에 따라 미추가 판별됨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ㄹ. 현상체 인격이 아닌 예지체 인격의 명령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조작은 인간의 동등한 최초의 사회적 출발점을 고안해 낼 수 있다.
- ② 인간의 이익(利益)을 위해 인간이 지닌 평등적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유전자 조작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고유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 ④ 유전자 조작은 과학 진보와 더불어 전 인류적 발전과 안녕에 기여한다.
- ⑤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유전적 요소들을 은폐·조작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을 :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 ① 갑 :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 ② 갑 : 해외 원조는 원조 주체보다 원조 대상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을 : 개인에게는 해외 원조의 주체로서 인권 유린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 ④ 을 : 본래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
- ⑤ 갑과 을 :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부의 격차를 균등히 하는 것이다.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최근에는 빅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는 디지털 맞춤 광고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판매자들은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 : 맞습니다. 빅 데이터는 개개인에 대한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 아닙니다. 각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따른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해당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법적인 규제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빅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 ② 디지털 맞춤 광고는 어떤 규제도 없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 ③ 디지털 맞춤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 ④ 디지털 맞춤 광고에 대한 공적인 법적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 ⑤ 디지털 맞춤 광고는 득보다 실이 많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利)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害)를 없앴을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에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옛 성왕(聖王)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을 : 성왕(聖王)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했다. 이에 예의(禮義)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의 성정(性情)을 교화하였다. 악(樂)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악(樂)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

- ① 갑 : 음악은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 ② 갑 : 음악은 그 자체가 지니는 심미적 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
- ③ 을 : 인간의 선(善)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
- ④ 을 : 백성은 스스로 음악을 제정해 자신의 성정(性情)을 교화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 음악이 사회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① 담론 참여자 중 일정 다수가 동의한 규범은 보편화 가능하다.
- ② 담론 참여자의 발언 기회는 담론 내에서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담론 참여자는 합의된 결론을 다시 토론장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어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국제 사회에서 전쟁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물만이 법을 혐오하는 적대적인 경향성의 흐름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을 :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적 명령과 성공적인 정치 행위의 요구 사이에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 <보 기> —

- ㄱ. 갑 : 이방인에게는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로서 타국에 대한 방문권이 존재한다.
- ㄴ. 갑 :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의 강제적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ㄷ. 을 : 정치적 갈등은 국내적 정치와 달리 국제적 정치에서 권력 투쟁을 그 본질로 삼는다.
- ㄹ. 갑과 을 : 국제 정치에서 국제적 규범은 전 지구적 평화로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예(禮)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사욕(私慾)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을: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존중할 것이고 스승과 법도가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을 존중할 것이다. 스승과 법도라는 것은 노력을 쌓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본성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본성이란 스승과 법도의 교화 없이 독립적으로 본성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禮)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仁)은 예의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보고, ㉡ 예가 인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허례허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 예에 근거해 성정(性情)이 악한 인간의 무절제한 욕구 추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으며, ㉣ 예를 통해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예를 보편적인 외적 규범으로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대부분의 동물 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비슷하게 가지는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존중하자는 것이다.</p> <p>을 :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는 그것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삶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사실, 즉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있다.</p> <p>병 :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왔다.</p>
-----	--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p>— <범 레> —</p> <p>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병만의 입장 D :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p> </div>
-----	---

— <보 기> —

- ㄱ. A : 케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동물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 ㄴ. B :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생명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 ㄷ. C :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개체 중심적인 관점을 관철(貫徹)할 필요는 없다.
- ㄹ. D : 인간에게는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유인원에 대한 도덕적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 <보기> —

- ㄱ. 인간은 인간에게만 비호혜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ㄴ. 인간은 인간 실존에 대한 의무를 공포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 ㄷ.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로 이어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을: 자연 상태에서 당연하는 폐단, 곧 모든 사람이 가진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며 거기서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 <보기> —

- ㄱ.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악(惡)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 ㄴ. 갑: 자연법은 만인이 무제한적 자연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 ㄷ. 을: 이성인 인간에게 타인의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 ㄹ. 갑과 을: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지닌 자는 평생 인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혜롭게 숙고 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리라.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淸淨梵行)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 <보기> —

- ㄱ.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ㄴ.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 ㄷ.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중 하나이다.
- ㄹ.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동류(同類)를 먹는 것과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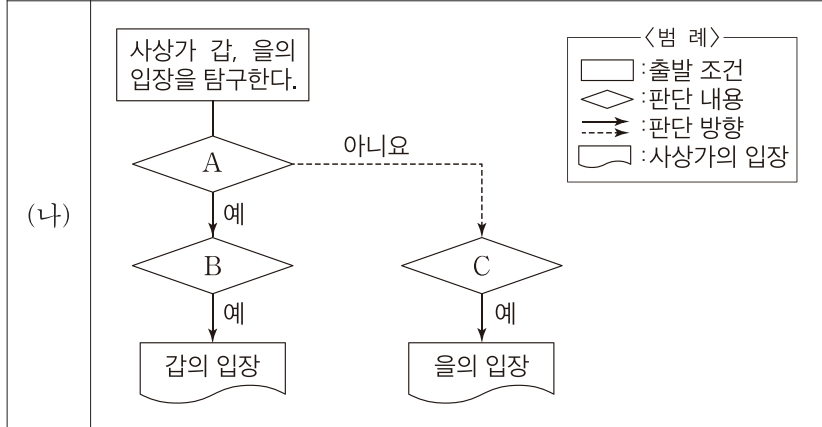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분리의 완성인 것이다. 영혼이 독립해 있어서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을: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① 갑: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물 그 자체를 감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갑: 육체와 영혼은 죽음을 통해 참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 ③ 을: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의 쾌락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④ 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내세에서의 쾌락과 평안을 제공한다.
- ⑤ 갑과 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유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을: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다.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므로 좁은 기능으로 제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된다.



— <보기> —

- ㄱ. A: 정의의 원칙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 형식으로 볼 수 있는가?
- ㄴ. B: 타인의 재능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ㄷ. B: 상충되는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ㄹ. C: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부당하면 교정의 원리에 의해 바로잡아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미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 ① 공직자는 필연적으로 덕을 지녀야만 하는가?
- ② 공직자의 정당한 사유 재산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③ 공직자는 이기적인 마음과 염치를 버려야 하는가?
- ④ 청렴한 사람만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 ⑤ 공직자는 백성을 위해 절약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형벌은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국가의 강제이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최대 다수에게 유익한 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을 목격하는 데에 생겨나지 않는다.



- ① 갑 : 국가는 살인범이 아닌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갑 :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것에서 사형의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
- ③ 을 : 국가가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 ④ 을 : 국가는 범죄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 ⑤ 갑과 을 :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보복의 의지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8.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갑 : 성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승인을 받은 관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성적 관계의 결과인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 : 성적 관계의 궁극적 목적은 둘의 사랑이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성적 쾌락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성적 관계는 사회적 승인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성적 관계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성적 관계의 목적은 종(種)을 재생산하려는 것과 결부됨을 간과한다.
- 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① 성과 속은 구분되지 않으며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②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종교적 인간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지 못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그 자체를 신으로 본다.
- ④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이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세계와 성스럽지 않은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2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 언제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없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p> <p>을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p> <p>병 :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p>
(나)	<p>Legend: (법 레)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 (예 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 효용성이 없는 합법적 수단도 시민 불복종에 우선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와 D : 시민 불복종 행위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 시민 불복종은 그 어떤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행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E :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간단한 도덕적 규칙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 시민적 행위가 부정의한 사회 체제 자체를 변혁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